
2021년 9월 15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자료 - Ver.1 공동읽기와 묵상

제목 : 레위기 17. 거룩의 리듬 - 절기

본문 : 레위기 23장 1~8절

(레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
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

1.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시간의 멀티
버스를 이야기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지
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점에서 시간은 모든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입니다. 또한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도 역시 시간입니다. 괴로움
과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라 할찌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 #. 레위기 23~25장에는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절기를 뜻하는 단어 ‘모에드
- מועד ’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때나 모임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시간이나 모임이나 장소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건-특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에 절
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1) 절기와 관련하여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
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구체적인 절기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기를 왜 제정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입니다.
- 2) 절기와 함께 23장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말이 “성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
회란 ‘성’(코데쉬:קֹדֶשׁ-거룩함, 분리됨, 신성함)과 ‘회’(미크라:סְבִיבָה-소집, 집회, 낭독
←부르다, 소환하다, 카라에서 유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회라고 하는 말과 자주 함께 등장하고 있
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기에 담긴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 3)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기 전에 레위기 23장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안
식일 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절기를 설명하기 전 그 첫머리에 안식일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의외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안식일의 정신과 규정이 매년 지키는 절기
규정의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기본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 땅의 안식년이 말하는 의미

2. 절기에 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이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결코 길이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의 아쉬움이야 어쩔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짊어 남깁니다. 하지만 시간의 의미는 얼마나 오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새겨졌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 역시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 #. 게오르규의 25시나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부조리와 모순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되새기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견디어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모진 왜곡과 뼈뿔어짐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 1) 절기와 관련된 언급이 23장과 25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소 문맥이 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 있던 등잔불과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고민했던 답답한 시간들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은 한 번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어떤 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 2) 23장의 절기와 관련되어 한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언급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23장에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와 절기들이 지켜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절기에 제사가 드려지기에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공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절기들은 그 백성이 살아가는 각 거처에서 지켜집니다. 일상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는 일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이 계속되고 있는 일상과 단단히 결합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 3)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절기(?)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23장에서 언급된 절기들의 사이클과는 조금 다릅니다. 7년 그리고 7년을 일곱 번을 더 지난뒤 찾아오는 희년의 주기는 이전에 언급된 절기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땅의 안식년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기존의 족쇄들로부터 풀려나서 이전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의 정신입니다. 역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할수 없는 것을 주님은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어느새 다가와 손 내미시며 슬픔조차 희망의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가슴벅찬 리듬을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